

## ○ 굴묵밧할마님 본

동복(東福)에 부락(部落)이 엊일 때, 동북의 와서 굴묵밧<sup>1)</sup>이 살면서 모을을 설촌(設村)하고 아 이덜 넉<sup>2)</sup>도 들이멍 살다죽었는디. 죽으멍 말씀하네

『내 죽거들랑<sup>3)</sup>남녀구별(男女區別)을 몰라 죽엄시니<sup>4)</sup> 신당(神堂)으로 위호라. 그레민 인간번성(人間繁盛) 육축번성(六畜繁盛) 오곡풍등(오곡풍등) 만물번성 시켜주마.』

허여 위호는 신당(神堂)입니다.

## ○ 송씨하르바님 본

송두 송악산(松都松嶽山) 좌우청기(左右天機)를 집떠보니<sup>5)</sup> 제주 남방국(濟州南方國)동문밧(東門外)<sup>6)</sup> 동복리(東福里) 좌정(坐定)해야 그 부락(部落) 인명(人命)을 축흘 일<sup>7)</sup>과 제 명(命)이 부족호 일, 인간덜을 도와여<sup>8)</sup> 주어서 우마번성(牛馬繁盛)과 육축번성(六畜繁盛) 시길 만호다.

송두 송악산(松嶽山)서 누려오는디, 올 적인 낭낭선<sup>9)</sup> 패도목<sup>10)</sup> 상예화단<sup>11)</sup> 소반선<sup>12)</sup> 둘러타아지고<sup>13)</sup> 제주 남방국(濟州南方國)을 상(向)해서 들어 올 때, 제주 물모루<sup>14)</sup>를 근당(近當)호니, 굴묵밧할마니가 죽은 혼신(魂神)으로 나사서 밤의는 신불(神火)이요, 낮이는 연불(煙火)이요. 동복(冬服里)큰 갯맛<sup>15)</sup>드로 드러대니,

『어서 잘 왔다. 올디를<sup>16)</sup> 불써 지들렸노라. 조기(自己)가 여기 와진 원인을 알겠느냐?』

『오긴 와도 나는 모르겄읍네다.』

『내가 이 부락을 직호다가<sup>17)</sup> 죽어 저승 황천(黃泉)을 들어 가니 「너는 이승서 뭔 째(罪)를 허였느냐?」 쇄판관(崔判官)이 문세(文書) 들러 형벌(刑罰)을 논(論) 할 때, 날 「동복리란 모을을 설비(設備)하였고 인간덜을 무스태패(無事太平)로 다 기네겠도록<sup>18)</sup> 허였고 농수농업(農事農業) 짓는 법을 베와 줬고 상단궐(上丹骨)<sup>19)</sup> 중단궐 하단궐 여레듭(十八) 아이노새<sup>20)</sup> 수완단궐<sup>21)</sup> 인명(人命)옥호고 제 멩(命) 부족호 일을 막아 줍서 해서 상정월(正月)을 돌아오민 부락에 천제국젯법(天

1) 동복(東福里)의 지명.

2) 넉.

3) 죽거든.

4) 죽고 있으니.

5) 짚어 떠보니.

6) 제주성의 동문 밖.

7) 축원(祝願)할 일.

8) 도와(助).

9) 낭남선(落南船)

10) 배를 만든 재목의 이름인 듯.

11) 상여(喪輿). 「화단」은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 배의 지붕의 꾸밈을 표현한 것인듯.

12) 소범선(小帆船)

13) 둘러타가지고.

14) 수평선

15) 동복리(東福里)의 포명(浦名). 큰개맡으로, 「-맛-」은 머리맡의 말.

16) 올 데를. 오기를.

17) 지키다가.

18) 지내도록. 「-겠-」은 미래보조어간.

19) 신당집단민(信仰集團民)

20) 단골 중의 아이단골.

21) 수한단골의 잘못. 수많은 단골.

帝國祭法)을 허여 옥황상제(玉皇上帝)에 지인등수<sup>22)</sup>를 들었고, 만수무강 소원성취(所願成就)를 시겨 즐서 헤서 정승 염내대왕(閻羅大王)에 축원(祝願)을 드렸고, 백설(百歲)이 당<sup>23)</sup>니 저승 염내왕이 불러, 왕의 손(王孫)이라도 이 내 목심(命) 호수엇이 죽어지니, 저의 쥬(罪)는 이런 쥬 뱃기 엇습네다.」영<sup>24)</sup> 췌판관(崔判官)안티 말허였노라. 경<sup>25)</sup>난<sup>26)</sup> 췌판관(崔判官)이 말을 헤 «그레민 증기의<sup>27)</sup>원맹(元命)이 메기란<sup>28)</sup> 죽어졌제<sup>29)</sup> 헤고 증기(自己)가 데납 웃이<sup>30)</sup> 죽은 것이 쥬가 아니냐» 훌 때, 그럴 때 죽어 혼신(魂身)으로 굼금이 생각<sup>31)</sup>니, 내 데납(代納)을 정허여사<sup>32)</sup> 홀로고나<sup>33)</sup> 생각허여 앗아 천리(千里)를 보고 사<sup>34)</sup> 만리(萬里)를 밟던 것이다. 유왕황제국(龍王皇帝國)으로 꿈에 선몽(現夢)을 시겨서 이 낭낭선패도목을 타아지고 이디를<sup>35)</sup> 오게시리<sup>36)</sup> 혼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 할마님은 인무불견(人無不見)이라.

『아하, 이 어른이 나를 이끄지 오겠투루기<sup>34)</sup> 허였구나.』

송씨 하르바님이 그 할마님 지시(指示)를 받아가지고 마은여듭 (四十八) 상단궐(上丹骨)을 다  
오겠투루기 허여 그런 말을 모두 일르니, 마은요듭 상단궐에서 느 나 웃이<sup>35)</sup>인민덜을 모아, 인민  
덜이 말을 하둬,

『그 할마님 글은 말이<sup>36)</sup> 옳은 말이우다. 우리 민을을 그 할마님 글은대로 전부 다 지켜 주십서.』

『그러거들랑 나 곤는 대로<sup>37)</sup> 당신네도 지켜 주십서.』

『염네(念慮) 마십시오.』

『있는 단궐집(丹骨家)이랑 석 둘에 훈번도 좋고 없는 단골집이랑 여숫둘(六個月)에 훈번이 좋 수다. 굴뭇밧할마님 나시랑<sup>38)</sup> 초일궤(初七日), 정성(精誠)이 부족호거들랑 열일궤(十七日) 가곡, 열일궤 정성이 부족호거들랑 수무일궤(二十七日)에 가십서. 있는 집이랑<sup>39)</sup> 일년에 식번(三回), 없는 집이랑그네 일년에 두 번.』

이런 상의(相議)를 헌니. 있는 이 다 좋댄<sup>40)</sup> 말을 헌는다. 박집(朴氏宅)이 훈 단궐이 나서서 말 헌 뒤

『있다곤 해서 식번(三回)을 가곡 었다곤 해서 두 번을 갈 게 아니고, 둘둘마다 성의가 싫거들랑<sup>41)</sup> 가는 게 좋수다.』

만민이 다 흑기로 통일이 됩데다.

#### 22) 죄인등소(罪人等訴)

23) 이렇게.

24) 그리하니.

25) 자기의.

### 26) 그만이어서. 끝이어서

27) 죽어졌다고.

### 28) 대납(代納)

29) 정해야.

### 30) 하겠구나

### 31) 서서(立).

32) 여기를.

33) 오도록.

34) 오도록.

35) 너나없이  
36) 만한 만다

37) 만하는

38) 모의란

38) 놓일당  
39) 짓일락

40) 좋다고

41) 있거든.

상단궐(上丹骨)에서 제초(再次) 말씀을 헤기를

『우린 제주 와서 Ep 묻은 땅이 됨고 하르바님은 이제사 바괴서<sup>42)</sup> 초행(初行)으로 오시고 헤니  
뭐신<sup>43)</sup> 음식을 자시는 중 알지도 못하고 어떤 자리에 누웡 자는지 알지도 못하고 헤니 이것을  
알려 주십서.』

『할마님은 뭐신 임식(飲食)을 잡수와났느냐?』

『싱가지제물<sup>44)</sup>로 보리쌀(米)에 큰쌀(白米) 색간<sup>45)</sup> 것도 조와이 헤고<sup>46)</sup>, 서숙쌀(粟米)에 큰 쌀  
색간 건 조와이 아니 흡데다.』

『찬은 뭐신 찬을 잡수와났느냐?』

문의를 헤니, 단궐에서 말헤기를

『육물(六物)에 데훈 건 일째(一切) 안 잡수왔읍네다. 해물(海物)로 데훈 임식(飲食)도 해초(海草)  
라 헤민 체수<sup>47)</sup>를 몬들아서<sup>48)</sup> 잡수고 헤어(海魚)라 헤민 구워서뱃기 안 잡수왔읍네다. 떡으로 말  
헤민 「조손(子孫)덜이 부납<sup>49)</sup> 게시리<sup>50)</sup> 기영<sup>51)</sup> 훌게 웃다.<sup>52)</sup> 자꾸 친다<sup>53)</sup> 맨다 훌 것 웃이 일년에 훈  
번 돌레떡이나 헤여달라」 헤고 쓸문<sup>54)</sup> 계란이나 좋아햇읍네다. 술도 아이 잡수고 감주(甘酒)뱃기  
안 잡수왔읍네다.』

그 말 끝데는

『그레민 나도 할마님과 그찌 임식(飲食)을 먹는데, 벨따른<sup>55)</sup> 임식이 훈가지 있노라. 소주(燒酒)  
를 난 좋아<sup>56)</sup> 노라. 기영<sup>57)</sup> 헤고 그 할마님 산 쪽의 그엉신내<sup>58)</sup>는 누게가<sup>59)</sup> 했느냐?』

『췌씨(崔氏)하르바님이 했읍네다.』

『그 하르바님이 지금 살았느냐?』

『이디 앗아 있읍네다.』

흘목<sup>57)</sup>을 비여잡아서<sup>58)</sup> 그 엉신내도 울고 하르바님도 울었고나.

본도지관(本土地官)님이 말씀<sup>59)</sup> 헤워, 췌씨(崔氏)하르바님보고

『푼채(佛陀) 없는 절(寺)을 직<sup>60)</sup> 헤자<sup>61)</sup> 훈 게 얼마나 울며 얼마나 간장을 썩였느냐?』 그 할마님  
돌아간 뒤으로는 뭘 했느냐?』

『내리 일훼날<sup>61)</sup>이 당<sup>62)</sup> 헤민 어느 주당(住堂)의서 아이가 궤로왕직<sup>63)</sup> 집의 왕 빌어 가라.

42) 육지에서, 도외(島外)에서.

43) 무슨.

44) 자기 집에 있는 제물이란 뜻.

45) 섞은

46) 좋아하고

47) 채소.

48) 만들어서.

49) 분주하게, 분주하도록.

50) 그러할 것이 없다.

51) 찐다.

52) 삶은.

53) 별다른.

54) 그러고.

55) 모시던 신하 곧 메인 심방의 뜻.

56) 누가

57) 팔목

58) 덥석 잡아서.

59) 지키려고, 지키자고.

60) 썩였느냐.

61) 이렛날.

62) 괴로움직하니, 곧 앓을 듯하니.

64) 영호민<sup>65)</sup> 신부름을 해 온겁네다.』

『선몽(現夢)을 헤느냐?』

『둘둘마다 식번(三番)은 흡네다.』

『그레면 나가 온댄<sup>66)</sup> 소식을 할마님에게 못들었느냐?』

『울지말양 살암시민<sup>67)</sup> 너의 으지(依支)가 실 테니<sup>68)</sup> 일년만 종소(從事)해염거라<sup>69)</sup> 그런 예 뱃기 없음네다.』

『그럴 것이다. 그레면 내 그 할마님 데신(代身) 데납(代納)으로 들어살 테니. 언제던지 그 할마님 살 때 일처록<sup>70)</sup> 내 신

부름을헤여도라.<sup>71)</sup>너의 먹을 식량은 보리양미가 둘민<sup>72)</sup>너의 처(妻)를 내여 노민<sup>73)</sup>훈홉(一合) 줄 디 두홉도 줄 것이다. 서숙용시<sup>74)</sup>가 익을 동안은 구명도식(救命圖食)을 훌 것이다. 또 서숙용시가 부락에 들어오면 내 첫째 방법을 헤겠는디...』

본토지관(本土地官)이 부락민안티 말씀을 헤워(一升)도 좋고 두워도 조니<sup>75)</sup> 아져다<sup>76)</sup>주는 펜이 어떻습니까?』

만민백성(萬民百姓)이 전부 다 동의를 흡데다.

상단궐에서 말씀하기를

『누워 주무실 디는 어떤 디를 텩하네까?』

『나는 인간처(人間處) 사는 디 헤고는 띠와야<sup>77)</sup>된다. 멀리 땁지<sup>78)</sup>말고 펭주낭<sup>79)</sup>그늘이 질<sup>80)</sup> 좋다. 펭주낭 밑으로향. 제주에 완 보니 독(石)이 좋구나. 천년(千年)을 놔도 안 부서지고 만년을 놔도 안 부서질 테니 독(石)으로 석상(石床)을 맨들아 도라.』

『그리고 본도지관님이 상(床)은 언제 받것습니까?』

『우선 나를 첫체암<sup>81)</sup>위해 헤지 말고 부락에서 상정(上丁)이 돌아오건 천제국젯법(天帝國祭法)을 마련하라. 셋택일(初擇日)로 받아서 헤여도라. 그 전에랑 집의서 소소(小小) 헤 벨롱갱이<sup>82)</sup>고 뭐고 절대 위해지 말아라. 천제국제(天帝國祭)를 위하여 난 즉시(即時) 그날 아척(朝)이랑 할마님 헤곡 우리를 위하여 도라. 잘 출려<sup>83)</sup> 오고 못출려 오는 건 우리가 성의로 아니 받겠다. 본래(本來) 할마님 주손이 뒷였고 지금으로는 내 주선이 뒷였고, 출리쟁<sup>84)</sup> 헤민 엉는 주손에 곤란(困難)이

63) 와서

64) 빌(祝願)어 가거라.

65) 이리 하면.

66) 온다는.

67) 살고 있으면.

68) 있을 터이니.

69) 하고 있거라.

70) 일처럼.

71) 해 달라.

72) 보리 양미(糧米)맥수(麥收)를 해들이면의 뜻

73) 놓으면

74) 조농사

75) 좋으니

76) 가져다

77) 띠워야. 멀어져야.

78) 띠우지. 떨어지지

79) 팽나무

80) 제일

81) 첫처음. 제일 처음의 뜻.

82) 철갈이와 같음 각 집안에서 하는 신년 진경무제(進慶巫祭).

83) 차려.

아니냐. 떨어진 즈손 옷이 85)과세열명(過歲列名)<sup>86)</sup>이나 旱는 게 좋다.』

그 말 끝덴 87)상훼(鄉會)가 해산이 되고 쇄씨(崔氏)그 영신네<sup>88)</sup>고 본도지관님이 훌목을 잡아서 나가자곤 훌 쪽에 그영신 내보고

『어디가 좌정 훌 만旱냐?』

『물동산<sup>88)</sup>조은 디 있읍네다. 천년 폭낭<sup>89)</sup>만년 폭낭이 좋습네다.』

『가아 보자.』

간 하르바님이 돌아보더니마는 삼백년(三百年)이 나사 이 부락은 삼백호(三百戶)가 웬 듯 말 듯 旱구나. 우자용(右左龍)이 잘못 알았구나. 쇄씨(崔氏)그영신내야, 오늘 느旱고<sup>90)</sup>나旱고 마주막 말이여. 오늘로부면 느가<sup>91)</sup>나를 못볼 거, 나가늘<sup>92)</sup>못볼 거여. 이 丈을에 전책임(全責任) 가진 귓동장<sup>93)</sup>을 불르라. 귀참지<sup>94)</sup>를 불르라. 조녀<sup>95)</sup> 이뜸<sup>96)</sup>을 불르라. 구상장<sup>97)</sup>을 불르라. 영상장<sup>98)</sup>을 불루라.』

『예..저가 갔다 오겄읍네다.』

전무 다 그시간에 모이니 본도지관이 말씀을 旱는디

『내 이디 좌정(左定)을 훌 테니 삼일 동안 손을 걸쳐서 월성<sup>99)</sup>을 둘려 도라. 이 폭낭 앞으로랑 돌로 석상(石床)을 무어 도라.<sup>100)</sup>나가 앗아 천리. 사<sup>101)</sup>만리를 보느데, 旱 둘 육장<sup>102)</sup>부락을 돌아보 멍 굿인 일이 시민<sup>103)</sup>옥황상제(玉皇上帝) 저싱염내대왕(閻羅大王)신들로<sup>104)</sup>바당(海) 굿은 일이 시민 유황황제국(龍王皇常國)을 이디나 저디나<sup>105)</sup>갔다 왔다 旱는 것이 만민 인간 눈에도 안 벌<sup>106)</sup>것이요, 눈으로 안 벤댕<sup>107)</sup>엇댕<sup>108)</sup>旱지 말양 나곧는 대로<sup>109)</sup>지정케<sup>110)</sup>잘 허여 도라.』

신의성방(神房)보고 곤는 말이

『느가<sup>111)</sup>선설이<sup>112)</sup>이른(七十)만 웨거들랑 당하직(堂下直)을 旱라.』

---

84) 차리려고. 차리자고

85) 없이

86) 신년당굿

87) 끝에는

88) 동복리(東福里)의 지명

89) 팽나무

90) 너하고

91) 네가

92) 너를

93) 동장(洞將)부락의 사환을 감독 통솔하는 사람. 「것」은 구(舊)?

94) 「초지」가 아닌가? 「초지」는 연락역을 맡은 사람.

95) 존위(尊位)

96) 으뜸

97) 구향장(舊鄉張)에 맞춘 조운구인 듯.

98) 미상. 구향장(舊鄉長)에 맞춘 조운구이 듯

99) 월성 곧 월타리 담장.

100) 만들어 달라의 듯.

101) 서서(立)

102) 계속하여 쉬지않고

103) 있으면

104) -한테로

105) 여기나 저기나.

106) 보일

107) 보인다고

108) 없다고

109) 내 말하는대로

110) 지중(至重)하게.

111) 네가

112) 연령(年齡)이.

신입신자(新入信者)보고 흐는 말이

『너도 죽영 가민 섭섭지 아녀나?<sup>113)</sup>제일(第日)을 때마다 잔(盞)이나 혼잔 드리라. 옛천년(歲千  
年)이나 옛만년이나 이 일은 거절치 말양 흐라.<sup>114)</sup> 어느 신자(信者)가 들어와서 이 당을 메어  
서<sup>115)</sup> 옛해(歲年)심보<sup>116)</sup>하고 혼 것을 기억(記憶)허영 언제던지 높당<sup>117)</sup>후생(後生) 흐는 신자의게 전  
해 주라. 그렐 것 ?뜨며는 그 신자덜토 죽어서도 물은 안 굽을 거여.<sup>118)</sup>오늘부떠 느<sup>119)</sup>고 나<sup>120)</sup>곤  
그찌 눈에 안보게 웨였저. 119)궂인 일이 시나<sup>120)</sup>좋은 일이 시나 할마님광 그찌 내 선몽(現夢)  
을 드려주마.』

하르바님은, 그때 혼 눈을 트고<sup>121)</sup>보니, 강간 무례<sup>122)</sup>웨옵데다. 그로부떠 부락민이 변치 않고  
위<sup>123)</sup>는 당입네다.

○ 당 메어온 신내

췌씨하르바님(崔氏組)-이씨할마님-정동지(鄭同知)-박씨할마님-이씨할마님-고씨아바님-홍씨어머  
님-박인주(朴仁珠)

- 朝天面 北村里 男坐 朴仁珠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627-635.

---

113) 아니하나

114) 말아서 해라.

115) 당(堂)메다=심방이 당에 전속되어 무제 집행을 전담하고 당을 지키다

116) 놓았다가

117) 물을 안 굽는다는 말은 죽은 후 제사를 받아 잘 먹지는 못하지만 굽지는 아니한다는 말.

118) 같이

119) 되었다.

120) 있으나

121) 뜨고

122) 순식간에 산데온데 없이 아니보임.